

야권, 이재명 수사 검사 4인 탄핵안 법사위 회부

여당 불참 속 본회의서 통과
위법·탄핵소추 적절 여부 조사
개혁신당 “이재명 지키기” 비판
대통령실·검찰 등도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의 법사위원회로의 회부 동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린 당시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 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안전 제안 설명을 통해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 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어렵게 쫓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검사탄핵안을 국회법 제 130조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은 법사위에서 이들 검사 4인에 대한 위법 행위, 탄핵소추가 적절한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채택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소속 의원 170명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이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에 대한 아무 이견이 없이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됐다”며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과 대통령실, 검찰은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입법권 장악에 이어 사법권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법치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는 것, 계속해서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 모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 전국 특·광역시 최초 당직근무 폐지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 운영

광주시는 오는 8월1일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근무제를 폐지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당직근무 폐지는 직원들의 업무·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당직근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통합 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인력을 충원한다. 전담인력은 기존 근무인력과 함께 재난안전상황실에

서 당직민원과 재난대응 업무를 병행해 처리한다.

또 효율적인 당직민원 처리를 위해 KT와 협업해 인공지능(AI) 당직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뒤 8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황인재 총무과장은 “당직민원은 단순 안내, 타 기관 이첩민원이 대부분”이라며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육아 부담, 당직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국힘 광주시당 “전남대 새 병원 예타 통과돼야”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일 시당 회의실에서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추진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새 병원 건립 추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대병원이 새 병원 건립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재균 전남대병원 새 병원건립추진본부장은 “정부의 지역 필수 의료 역할을 강화 정책 및 의대 정원 확대와 발맞춰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새 병원 건립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남대병원이 제출한 ‘미래형 뉴 스마트 병원’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올 연말께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문금주 ‘육일기 사용 금지법안’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육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

분이 일으켰다. 개정안은 육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대전·대구, ‘글로벌대학30 본지정’ 힘 모은다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 협약 초광역 연합·지자체-대학 상호교류

광주시가 대전·대구시와 ‘글로벌대학 30 본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2일 대구시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한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공모에 전국 유일 초광역 연합모델 유형으로 신청한 광주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총장과 광주시·대구시·대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은 3개 보건대학교가 연합해 결성한 단일 협치(거버넌스) 사업으로 전라도·경상도·충청도를 아우르는 최우수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 보건의료 분야에서 아시아 최

고의 전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20개교 중 3개 지자체의 대학이 협력하는 초광역 연합모델인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은 대학혁신의 지평을 과감히 확대하고자 하는 글로벌대학 지정 사업의 취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본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다짐하고 향후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은 물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와 대학 간 적극 교류·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은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자체-대학 간 상호교류 확대와 행정·정책적 지원 △지역산업기반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등이 담겨져 있다.

한달빛 보건연합대학은 ‘새한달빛 글로

컬 보건연합대학’을 설립해 단일 의사결정의 연합스쿨을 운영(입시·교육과정·학사 등)하고, 지역특성화 캠퍼스로 광주보건대는 메디휴먼케어 산업을 중점으로 늘·돌봄 특화캠퍼스, 대구보건대는 소재기반 바이오헬스의 헬스케어 특화캠퍼스, 대전보건대는 디지털·바이오 치료제 산업을 활용한 바이오·재활 특화캠퍼스를 구축해 보건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의 전문대학 모델을 제시했다.

김동현 대학인재정책과장은 “글로벌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혁신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광주보건대가 대구·대전 보건대와 함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의료·돌봄 ‘재가 의료급여’ 전면 확대

전남도는 의료 취약계층의 퇴원 후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기존 시범 운영 중인 6개 시군에서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의료

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정착을 돕기 위해, 퇴원 후 집에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관리자, 병·의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의료·복지 필요도가 반영된 1인 돌봄 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71만 원 상당의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필수급여와, 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복지용품 등 선택급여를 제공한다. 오지현 기자

‘제16회 대통령배 e스포츠’ 광주대표선발전 개최

광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제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KeG)에 출전할 지역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KeG 광주대표선발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KeG 광주대표선발전’은 리그 오브 레전드(5인 팀전), FC 온라인(개인전) 총 2개의 종목으로 진행된다.

각 종목 1위 팀(인)에게는 광주시장상을 수여하고 입상자에게는 8월17일~18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리는 KeG 전국 결

선에 광주시 대표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온라인 예선은 20일, 오프라인 본선은 27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본선 경기는 광주 이스포츠경기장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참가 신청은 14일까지며 광주e스포츠 경기장 누리집을 통해 대회 참가신청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현 기자